

朝鮮前期 朱子 著述의 刊行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Works of Zhuxi Published in the Early Joseon Dynasty

최 경 훈(Choi, Kyung Hun)*

◁ 목 차 ▷

- | | |
|----------|----------|
| 1. 緒 論 | 5. 集部 著述 |
| 2. 經部 著述 | 6. 分 析 |
| 3. 史部 著述 | 7. 結 論 |
| 4. 子部 著述 | <참고문헌> |

< 초 목 >

본 연구는 조선 전기 간행의 주자 저술 18종을 대상으로 현존본과 문헌 조사를 통하여 그 간본을 조사하고, 이를 저술별, 판본별, 간행지역별로 분석한 것으로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자의 저술은 목판본 97회, 금속활자본 48회, 목활자본 2회, 판본 미상 1회로 모두 148회 간행되었다.

둘째, 개별 저술은 經筵, 書筵 등 왕실 교육의 교재나 관학의 교과서로 채택된 「小學」, 「孝經」, 「家禮」, 「近思錄」, 「資治通鑑綱目」 등의 간행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셋째, 간행은 중앙에서 주도하였고, 경상도와 전라도를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서적 간행이 이루어졌다.

넷째, 주자의 저술은 대부분 중앙에서 금속활자로 간행하였으나 「童蒙須知」 등 4종은 지방관에 의하여 목판으로 간행되고 있어 중앙과 지방의 관 중심으로 상호 보완적인 간행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이 연구를 통하여 새롭게 소개되는 자료는 세종 11년(1429) 인출의 庚子字本 「文公朱先生感興詩」이다.

要語: 朱子, 朱熹, 朱子書, 「朱子大全」, 「資治通鑑綱目」, 「小學」, 「近思錄」

*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사서(lilimo@empal.com)

접수일: 2009년 6월 5일 최초심사일: 2009년 6월 8일 심사완료일: 2009년 6월 13일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18 works of Zhuxi published in the early Joseon Dynasty by examining the documents and the existing prints, and analyzed them according to the works, the editions, and the regions of publication.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Zhuxi's works were published a total of 148 times which include 97 times in woodblock prints, 48 times in prints with metal movable types, and 2 times in prints with wooden movable types.
2. The most frequently published works were *Sohak*, *Sigyeong*, *Garye*, *Geunsarok*, *Jachitonggam-gangmok*, etc. selected as textbooks for the royal court and national schools.
3. The printings were mainly conduc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and also locally done on nationwide scales, but mostly by Gyeongsang Province and Jeolla Province.
4. Most of Zhuxi's works were published by the central government with movable types, but four works, including *Dongmongsuji*, were published with woodblocks by local governments. Therefore, it is clear that there was co-operation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5. In this study, Gyeongjaja-bon *Mung-juseonsaeng-gamheungsi* printed in 1429 (the 11th year of the King Sejong's reign) is first introduced.

Key words: Zhuxi, *Jachitonggam-gangmok*, *Sohak*, *Geunsarok*, *Juja Daejeon*

1. 緒論

주자는 남송 이전의 유학 서적을 집대성하면서 주자성리학을 정립하였고, 이후 그의 저술은 성리학 이해를 위한 기본서로 각국에 전파되어 영향을 주었다.

고려시대에는 忠宣王(1275-1325)이 중국에 세운 萬卷堂을 통하여 주자성리학을 진수받은 姚燾, 趙孟頫 등 강남 출신 성리학자와 元에 유학한 李齊賢 등 고려 사대부의 교유 과정에서 주자의 저술이 전래되었다.¹⁾

성리학을 근간으로 하는 조선 개국 이후에는 통치 기반 마련을 위하여 왕실과 사대부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주자의 저술을 수입, 간행하는 한편, 왕실과 사대부의 교육을 위한 관학의 교재, 과거의 시험 과목으로 채택되면서 국가의 정책과 민간의 수요에 의하여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왕실과 관서를 중심으로 각지에서 간행되었다. 그 결과 주자의 저술은 조선시대 정치, 사회, 교육 등 다방면에 걸쳐 중추적 구실을 함은 물론, 성리학자의 서적 편찬, 간행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자 저술의 간행에 관해서는 역사, 철학 분야에서 성리학 서적의 일부로 언급되거나 四書を 중심으로 한 개별 저술이 연구되었을 뿐 저술 전반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조선시대 주자 저술의 간행에 대한 기초 연구의 하나로써 저술의 수입과 보급, 이해와 확산의 시기라 할 수 있는 1600년 이전의 조선 전기로 한정하여 간행에 대하여 각 저술별로 살펴보는 한편, 전체 저술의 간행 빈도, 판본을 중심으로 간행 양상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性理大全」과 같이 총서에 포함된 저술과 사서·오경류는 대상 범위에서 제외하고 독립적으로 간행된 저술 18종²⁾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주자의 저술은 문인에 의한 주석의 방식으로 증보되어 전래, 간행되었기 때문에 문인에 의한 주석서

1) 정옥자, “麗末 朱子性理學의 導入에 대한 試考,” 『震檀學報』 제51집(1981. 4), 29-30.

2) 家禮, 『孝經刊誤』, 儀禮經傳通解, 童蒙須知, 伊洛淵源錄, 資治通鑑綱目, 宋名臣言行錄, 『延平答問』, 『近思錄』, 『小學』, 『朱子語類』, 『周易參同契考異』, 『謝上蔡先生語錄』, 『二程全書』, 『朱子感興詩』, 『朱文公校昌黎先生集』, 『楚辭集註』, 『朱子大全』.

도 주자 저술의 범주로 포함하였다.

2. 經部 著述

2.1 「家禮」

「家禮」는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실천적인 의례를 성리학의 관점에서 정리한 禮學書로 중국 판본에 대한 연구³⁾는 있었으나 조선시대 간행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家禮」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것은 1353년(恭愍王 2)에 鄭夢周가 「朱子家禮」에 의거하여 家廟를 세우고, 神主를 만들어 선조의 제사를 받들도록 청하고 있어 고려 말에 전래되어 가정 의례의 참고서로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 간행과 관련된 가장 빠른 기록은 1403년(太宗 3) 平壤府에서 「家禮」 150부를 인쇄하여 각사에 나누어준 기록⁴⁾이다.

조선시대에 「家禮」는 1305년 黃瑞節이 편찬한 「朱子成書」와 1415년 호광 등이 편찬한 「性理大全」에 포함되어 전래되었다. 「朱子成書」는 1403년(太宗 3) 10월에 전래되어⁵⁾, 乙亥字로 간행⁶⁾된 이후로는 간행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性理大全」은 1418년(世宗 1) 12월에 전래되어⁷⁾ 1427년에 경상도에서 판각된 이후로 지속적인 간행이 이루어졌다. 이는 「性理大全」이 개인 편찬의 「朱子成書」보다 110년 이후에 황명으로 관료 학자들에 의하여 편찬되었고, 劉璋의 補注와 같이 그 기간 동안의 연구도 축적되어 「性理大全」이 더 進一步한

3) 吾妻重二, 李承妍 譯, “家禮의 刊刻과 版本- 性理大全까지,” 東洋禮學 제4집(2000), 43-84.

4) 「太宗實錄」卷6, 太宗 3年 8月 甲戌條.

5) 「太宗實錄」卷6, 太宗 3年 10月 辛未條.

6) 朱子成書의 일부인 律呂新書 1책과 易學啓蒙 1책이 계명대와 규장각에 각각 소장.

7) 「世宗實錄」卷6, 世宗 1年 12月 丁丑條.

자료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되며, 조선시대의 간본에 黃瑞節이 정리한 ‘家禮28圖’와 「性理大全」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劉璋의 補注가 들어 있음을 통해서 알 수 있다.⁸⁾

이와 같이 家禮는 독립적인 형태가 아닌 연구 성과가 축적된 朱子成書와 「性理大全」과 같은 총서의 일부로 간행되다가 4권본을 거쳐 7권본⁹⁾으로 재편되어 간행되었다. 독립 4권본은 「性理大全」의 권18-21에 포함된 것을 분리하여 그대로 판각한 것으로, 「家禮大全」 혹은 「家禮大全書」를 서명으로 하고 있는 계통이다.¹⁰⁾ 이 계통의 刊本은 1563년(明宗 18) 谷城縣에서 간행된 목판본이 확인된다. 권수제는 ‘家禮大全書’로 판심제는 ‘家禮’로 되어 있으며, 谷城縣監 蘇邈와 全羅道觀察使 金德龍의 주도로 간행되었다. 이러한 4권본은 현존 有刊記本인 1603년 星州 川谷書院 刊本과 1611년 咸興府 刊本 등과 같이 17세기 초반까지 나타나고 있다.

<1563년 谷城縣 刊本の 卷末 記錄>

嘉靖癸亥 谷城縣開刊 南原上
校正 通訓大夫 行谷城縣監 蘇邈
奉正大夫 行都事 金啓
嘉善大夫 全羅道觀察使 兼兵馬水軍節度使 金德龍

「攷事撮要(1568)」에 의하면 大邱, 玄風, 原州에 책판이 있었다. 또한 「攷事撮要(1585)」에는 永川, 海州, 尙州, 南海에 「家禮」의 책판이 있었고 咸平에는 「抄家禮」, 會寧에는 「小家禮」의 책판이 있었다.

한편 明의 丘濬(1418-1495)이 「家禮」에 註를 달고 儀節을 첨가하여 8卷으로 편집한 「文公家禮儀節」도 전래, 간행되었다. 이 책은 1518년(中宗 13) 11월에 金安國이 명나라에서 買來한 도서에 포함되어 전래되었다.¹¹⁾ 전래 이후에는 바

8) 吾妻重二, “「家禮」의 刊刻과 版本-「性理大全」까지,” 69-72.

9) 1658년(孝宗 9) 鏡城府 刊本 이후 「家禮」 編次의 전형이 되었음.

10) 4권본인 1611년(光海君 3) 咸興府 刊本을 보면 版心題가 ‘性理大全卷之十八’과 같이 나타나 「性理大全」의 編次를 그대로 板刻하고 있음.

로 乙亥字로 간행이 이루어졌으며,¹²⁾ 1555년(明宗 10)에는 忠淸道 淸州에서 판각되었다.¹³⁾ 청주 간본의 권말에는 1555년의 金忠甲(1515-?)의 발문에 이어 淸洪道觀察使 閔箕, 淸州牧使 李楨 등 간행 참여자가 판각되어 있다. 金忠甲은 1553년(明宗 8) 간행의 「朱子感興詩」에도 발문을 썼다.

2.2 「孝經刊誤」

「孝經刊誤」는 주자가 당시에 유통되던 今·古文 「孝經」이 孔子와 曾子의 문답 내용이 소략하고, 여러 책에서 인용한 것이 뒤섞여 있음에도 인용된 부분까지 공자의 말이라고 믿는 당시 상황을 비판하면서 經1章과 傳14章의 체제로 재편하여 57세 되던 1186년에 완성한 것이다.¹⁴⁾

「孝經」의 간행과 관련해서는 세종 11년(1429)에 判府事 許稠의 계청으로 鑄字所로 하여금 250질을 인쇄, 반포하도록 하여 頒賜한 기록이 있다.¹⁵⁾

현존 간기본으로는 우선 1476년(成宗 7) 全州府尹 尹孝孫이 全州에서 開板한 것이 전하는데, 권수제는 「孝經」으로 되어 있으나 내용은 주자의 孝經刊誤 이다. 尹孝孫의 跋文에 의하면 그 이전에 全州에 藏板되었던 판본이 마모되어 다시 조맹부의 송설체 「證道譚」를 바탕으로 글자를 써서 판각한 것이다. 尹孝孫은 1년 뒤인 1477년(成宗 8)에 慶尙監司로 부임하여 全州府尹으로 있을 때 간행한 책을 사용하여 善山都護府使 金宗直에게 板刻하게 하였다.¹⁶⁾ 全州 간본은 이후 南原府에서 중간되었다. 南原 重刊本¹⁷⁾에는 「歲在庚寅十二月日南原府重刊」이라는 간기와 함께 저본이 되었던 全州 간본에 수록된 尹孝孫의 발문과 간기는 판각되어 있으나 南原에서의 간행과 관련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11) 「中宗實錄」卷34, 中宗 13年 11月 戊午條.

12) 국립중앙도서관과 청주고인쇄박물관에 零本 소장.

13) 刊記: 嘉靖乙卯(1555)夏淸州牧開刊.

14) 정호훈, “朱子 「孝經刊誤」와 그 성격,” 「東方學志」 제116집(2002), 80-81.

15) 「世宗實錄」卷43, 世宗 11年 3월 戊辰條, 「世宗實錄」卷44, 世宗 11年 5월 乙丑條.

16) 1603년(宣祖 36) 興海 刊本에 수록된 金宗直의 跋文.

17) 板式: 四周單邊, 半郭 24.8×15.5cm, 有界, 4行8字, 內向2,3葉花紋魚尾.

이상의 간본을 종합하면 尹孝孫이 1476년(成宗 7)과 1477년(成宗 8)에 全州와 善山에서 간행을 주도한 이후 이를 底本으로 판각되었음을 알 수 있다. 『攷事撮要(1568, 1585)』에도 慶州, 錦山, 寶城, 遂安, 淮陽, 安東, 井邑, 三陟, 羅州, 玉果, 平壤, 居齊, 盈德, 會寧과 같이 全라도와 경상도를 중심으로 14곳의 郡현에 藏板되고 있어 비슷한 시기에 尹孝孫 간행본을 底本으로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孝經刊誤』와 함께 董鼎(元)이 增註한 『孝經大義』도 전래, 간행되었다. 『孝經大義』는 1590년(宣祖 23)에 孝經大字와 補鑄한 乙亥字로 인출되었다. 1589년(宣祖 22)의 柳成龍 奉教跋이 있으며, 1590년(宣祖 23)에 『孝經諺解』와 合部되어 司憲府 掌令 張雲翼에게 內賜되었다.¹⁸⁾ 대구 개인 소장본의 목활자본¹⁹⁾도 전하는데, 이는 전체가 木으로 덧칠되어 있어 판본 확인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印란 이전의 蓋印자 계열의 木활자본²⁰⁾으로 보인다. 『孝經大義』는 이후 景오자체 혼련도감자본, 正유자본 등 朝鮮 후기까지 多수 간행이 이루어졌다.

2.3 「儀禮經傳通解」

『儀禮經傳通解』는 기존의 『儀禮』에 『禮記』 등 禮書를 참조하여 저술한 것으로 『家禮』와 더불어 주자의 대표적인 禮學書이다.

구성 체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우선 주자가 직접 審定한 『家禮』 5권, 鄉禮 3권, 『學禮』 11권, 『邦國禮』 4권의 『儀禮經傳通解』, 다음으로 자료를 모아 정리하였으나 직접 완성하지 못한 『王朝禮』 14권의 『儀禮集傳集註』, 그리고 주자 사후에 문인 黃幹이 1219년에 완성한 『喪禮』 15권과 黃幹에 이어 문인 楊復이 審定한 『祭禮』 14권의 『儀禮經傳通解續』 29권이 그것이다.

『儀禮經傳通解』는 기존의 왕조 중심의 五禮(吉禮, 凶禮, 軍禮, 賓禮, 嘉禮) 체제 答습하지 않고, 인간 的 삶과 관련시켜 家禮, 鄉禮, 學禮, 邦國禮, 王朝禮,

18) 일본 존경각 소장.

19) 板式: 四周雙邊, 半郭 23.5×17.2cm, 有界, 10行17字, 註雙行, 內向黑魚尾.

20) 1600년 慶州에서 廬江書院活字를 취하여 간행한 『孟子大文』과 유사한 활자로 추정됨.

喪禮, 祭禮의 체제를 수립하여 이후 의례 관련 지침서로서 의의를 가진다.²¹⁾

「儀禮經傳通解」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시기는 명확하지 않으나 1412년(太宗 12) 8월에 「經傳通解」 등을 참고하여 神德王后의 忌晨에 처음으로 代押文을 가지고 齋祭를 행하였다는 기록이 처음으로 보이며,²²⁾ 1451년(文宗 1) 7월에 赴京使臣에게 經傳通解 등 서책을 사오게 하고 있어²³⁾ 조선 초기 이전에 전래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에서의 간행은 1567년(宣祖 卽位年)의 10월 5일과 11월 4일에 奇大升과 李滉이 ‘儀禮經傳通解續’에 대하여 과거에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는데, 마침 弘文館 소장 서적의 목록을 고열하는 과정에 40여 권이 나와 그 내용이 각 부분을 분명하게 해석하고 있어 교서관으로 하여금 간행·반포하기를 청하여²⁴⁾ 이에 따라 간행이 이루어졌다.

그 간행은 목활자가 混入된 甲寅字本으로 1570년(宣祖 3) 5월에 인출되어 李滉²⁵⁾과 朴承任²⁶⁾에게 내사되었다. 1571년(宣祖 4) 4월에는 續集이 인출되기도 하였다.²⁷⁾

2.4 「童蒙須知」

「童蒙須知」는 童蒙教育을 위한 저술로 「訓蒙齋規」라고도 한다. 「衣服官服」, 「語言步趨」, 「灑掃涓潔」, 「讀書寫文字」, 「雜細事宜」의 5篇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小學」에 앞서 학습하게 되는 입문 교재이다.

21) 박미라, “儀禮經傳通解 의 체제에 나타난 朱子の 禮學思想,” 종교와 문화 제3집(1997), 228-229.

22) 「太宗實錄」卷24, 太宗 12年 8月 乙亥條.

23) 「文宗實錄」卷8, 文宗 1年 7月 24日 庚申條.

24) 宣祖修正實錄 卷1, 宣祖 卽位年 10月 丙戌條, 宣祖實錄 卷1, 宣祖 卽位年 11月 乙卯條.

25) 李春熙, 「李朝書院文庫目錄」(서울: 국회도서관, 1969), 11.

26) 內賜記: 隆慶四年(1570)五月日, 內賜承政院右承旨朴承任儀禮經傳通解一件, 命除謝恩都承旨臣李[手決](고려대 도서관 소장).

27) 「宣祖實錄」卷5, 宣祖4年 7月 戊辰條.

우리나라에 전래된 것은 명확하지 않으나 간행은 1517년(中宗 12) 金安國에 의하여 知禮縣에서 이루어졌다. 知禮縣에서의 간행은 安陰縣監 尹孝聘이 1517년 7월에 작성한 발문에 의하면, 金安國이 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간행을 부탁하자 知禮郡守 姜漢에게 글씨를 쓰게 하여 간행하였다고 한다. 이 간본은 당해 3세이던 元子の 동몽 교재로 사용되었고, 中宗은 「小學」과 함께 이 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²⁸⁾

「童蒙須知」는 명·선조 연간에 판각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攷事撮要(1568)」에 의하면, 淸州, 務安, 玉果에 책판이 소장되어 있었으며, 「攷事撮要(1585)」에는 星州, 榮川(榮州), 順天, 平壤, 延安에서 책판의 所藏 사실이 확인된다. 이 가운데 「攷事撮要(1585)」에 수록된 榮川(榮州)의 책판은 郡守 許忠吉이 1574년(宣祖 7)에 간행한 것으로 盧守愼이 懸吐와 疏義를 붙인 것이다.

한편 趙憲은 1570년(宣祖 8)에 柳希春에게 口訣을 묻고 金玄成에게 책을 빌려 베껴서 「童蒙須知」의 판각을 완료한 후, 국왕에게 이를 팔도 감사에게 보내어 동몽교육을 위한 교재로 활용할 것을 청하여 인쇄한 책을 올리라는 하교를 받았는데,²⁹⁾ 「攷事撮要(1585)」에 추가 수록된 책판은 趙憲이 판각하여 진상한 것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3. 史部 著述

3.1 「伊洛淵源錄」

宋代의 周敦頤 이하 유학자 46인의 언행과 사적을 기록하고, 그 師友授受關係를 밝혀 도학의 연원과 그 계승을 밝힌 것으로 주자가 44세 되던 1173년에 14권으로 저술한 것이다. 본서는 「宋史」, 「道學傳」에 수록된 인물의 근거자료로 활용되었을

28) 「中宗實錄」卷31, 中宗 12년 12월 乙酉條.

29) 「宣祖實錄」卷9, 宣祖 8년 3월 乙卯條.

뿐만 아니라 明·清代의 「宋元學案」, 「明儒學案」의 편찬에도 영향을 주었다.³⁰⁾

조선시대에는 楊廉(明)이 1496년(弘治 9)에 편찬한 「伊洛淵源錄新增」과 謝鐸(明)이 1480년(成化 16)에 편찬한 「伊洛淵源續錄」이 전래, 간행되었다. 「伊洛淵源錄新增」은 「伊洛淵源錄」을 그대로 수록하고 각 편에 <新增>이란 별도 항목으로 내용을 增入한 것으로 「朱子大全」과 「朱子語類」에서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伊洛淵源續錄」은 「伊洛淵源錄」을 이어 주자를 포함한 21인의 언행과 사적을 모아 6권으로 편찬한 것이다.

1515년(中宗 10)에 弘文館副提學 金謹思 등이 本館에 「伊洛淵源錄」 등이 하나씩만 있으므로 서적을 간행하기를 청하였고, 이에 中宗은 都監을 설치하여 팔도에 분장하여 판각하게 한 기록³¹⁾이 있어 그 이전에 전래되었으나 판각·광포 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 간본으로는 李楨(1512-1571)이 1562년(明宗 17)에 李滉의 발문을 받아 간행한 것이 있다. 이황의 발문에 의하면, 慶州 府尹 李楨이 책을 가지고 와 간행의 뜻과 함께 謬訛의 考訂을 부탁하자 이를 간략하게 교정하여 監司 南宮沈(1513-1567)에게 부탁하여 列冊에 나누어 간행하게 하였다고 한다. 南宮沈은 1561년에 慶尙監司로 있었으나 「攷事撮要(1585)」에 와서야 永川에 책판 소장이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간행이 지연되었거나 「攷事撮要(1585)」에 와서 이전까지 누락되었던 책판이 수록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때의 간본은 권말의 李滉의 발문에 이어 高賁亨이 두 책을 합하여 重刻한 사실을 기록한 <重刻伊洛淵源二錄跋>이 있어 그 저본이 1530년 高賁亨(明)이 「伊洛淵源錄新增」과 「伊洛淵源續錄」을 합각한 것임을 알 수 있다.

「攷事撮要(1585)」에는 南原에도 책판이 있었는데, 이는 1515년(中宗 10) 중종이 다른 서적과 함께 팔도에 판각을 명한 것과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30) 朱傑人 等, 「朱子全書」 12(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2), 909.

31) 「中宗實錄」 卷23, 中宗 10년 11월 甲申條, 同年 11월 丙戌條.

3.2 「資治通鑑綱目」

司馬光(北宋)이 기원전 403년(周 威烈王 24)부터 기원후 959년(宋 顯德 6)까지의 編年體 史書인 「資治通鑑」 294권을 편찬하였으나 요점을 이해하고 평가를 하는 것에는 부족함이 있어 門生弟子와 함께 「資治通鑑綱目」 59권으로 편찬한 것으로 완성하지는 못하고 문인 趙師淵이 修補하였다. 綱目的 '綱'은 「春秋」의 예에 따라 大字로 提要를 총괄하고 褒貶하는 것이고, '目'은 「左傳」의 예에 따라 分註 방식으로 條目에 따라 상세히 서술하는 것이다.

조선시대 전래와 관련된 기록으로는 1354년(恭愍王 3)에 鄭夢周가 「通鑑綱目」의 예에 따른 역사 편수를 언급하였고,³²⁾ 閔安仁이 고려 때 세자에게 綱目通鑑」을 바쳤다는 기록이 있다.³³⁾ 1400년(正宗 2)에는 經筵에서 進講하고,³⁴⁾ 1403년(太宗 3)에는 成石璘 등이 중국에서 구한 「通鑑綱目」을 進上³⁵⁾하기도 하였다. 이를 통하여 고려 말에 이미 전래되었고, 조선시대에는 경연의 진강 교재로 사용되는 등 역사서의 경전으로 인식되면서 간행이 본격화되었다.

우선 1420년(世宗 2) 겨울부터 集賢殿에서 교정하여 鑄字所에서 인출이 이루어졌는데, 그 작업은 1422년(世宗 4) 겨울에야 마무리되었다.³⁶⁾ 1427년(世宗 9)에는 內庫의 倭紙로 鑄字所에서 인출되었는데,³⁷⁾ 이 때 校書著作郎 蔣敦義와 成均直學 裴杠이 鑄字所의 관원으로 인쇄에 錯誤가 많은 문제로 義禁府에 下獄되기도 하였다.³⁸⁾

현재 전하는 경자자본은 주석의 위치에 차이가 있어 본문 가운데에 주석을 다는 형식과³⁹⁾ 본문 끝에 <考異>와 같이 주석을 다는 형식의 2종이 전하고 있으

32) 「高麗史」 <列傳> 제30, <鄭夢周>.

33) 「太祖實錄」 卷13, 太祖 7년 3월 甲寅條.

34) 「正宗實錄」 卷4, 正宗 2년 6월 乙未條.

35) 「太宗實錄」 卷6, 太宗 3년 9월 戊子條.

36) 「世宗實錄」 卷11, 世宗 3년 3월 丙戌條.

37) 「世宗實錄」 卷38, 世宗 9년 11월 丁亥條.

38) 「世宗實錄」 卷39, 世宗 10년 1월 丁亥條.

39) 청주고인쇄박물관 소장.

며,⁴⁰⁾ 이 가운데 본문 가운데 주석을 다는 형식이 앞선 판본이다.

1434년(世宗 16)에는 갑인자로 인출되었으며,⁴¹⁾ 1502년(燕山君 8)에는 癸丑字⁴²⁾로 인출되었다. 계속자본은 「資治通鑑綱目」의 주석서인 王幼學(元)의 「資治通鑑綱目集覽」과 尹起莘(宋)의 「資治通鑑綱目發明」도 함께 인출되었으며, 이후 飜刻도 이루어져 檜淵書院에 전한다.

중종 연간에는 목활자 혼입의 갑인자로 인출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⁴³⁾ 이 중종조의 갑인자본은 1496년(弘治 9)에 黃仲昭(明)가 新刊한 「資治通鑑綱目」을 저본으로 하고 있다. 黃仲昭의 新刊本은 각종 주석서⁴⁴⁾를 참조하여 주자의 주석에 이어 필요에 따라 附入하고, 黎喆, 吳錡, 鄧傑 등의 校讎를 거쳐 1496년(燕山君 2) 3월에 완성한 것이다.⁴⁵⁾ 중국에서는 1218년(嘉定 11) 초간의 「資治通鑑綱目」 판목이 국가감으로 옮겨진 이후 明初까지 수차례 보관을 통하여 계속 간행되다가 명대에 들어와 이와 같은 증보가 다수 있었으며,⁴⁶⁾ 조선시대에는 증보본 가운데 黃仲昭(明) 新刊本이 종종 이후부터 전래,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朝鮮王朝實錄의 기록에 의하면, 永同에서 新刻된 책판을 1573년(宣祖 6)에 校書館으로 이송하게 하고,⁴⁷⁾ 중종조에 校書館에서 인출되었던 것을 저본으로 판각한 嶺南의 책판⁴⁸⁾도 1574년(宣祖 7) 11월에 校書館으로 옮기게 하고

40) 영남대 도서관 소장.

41) 印出記: 宣德九年十一月日印出.

42) 板式: 四周雙邊 半郭 27.0×16.9cm, 有界, 8行16字 小字雙行, 上下黑口, 內向黑魚尾.

43) 계명대 동산도서관 소장.

44) 徐昭文(元)의 「資治通鑑綱目考證」, 汪克寬(元)의 「資治通鑑綱目考異」, 王幼學(元)의 「資治通鑑綱目集覽」, 陳濟(明)의 「資治通鑑綱目集覽正誤」, 憑智舒(明)의 「資治通鑑綱目質實」, 劉友益(元)의 「綱目書法」, 尹起莘(宋)의 「資治通鑑綱目發明」.

45) 黃仲昭(明)의 <新刊資治通鑑綱目後序>.

46) 朱傑人 等, 「朱子全書」 8, 5.

47) 「宣祖實錄」 卷7, 宣祖 6년 9월 辛丑條.

48) 「宣祖實錄」 卷8, 宣祖 7년 11월 丙申條에 慶尙監司(尹根壽)가 金山 直指寺에 소장되어 있던 「發明綱目」 판본을 칠하고 粧鐵하여 4,182개를 올린 기록이 있는데, 「資治通鑑綱目發明」의 분량보다는 훨씬 많으므로 「資治通鑑綱目」의 誤記로 보이며, 동국대(경주) 도서관에 「己丑始印庚寅夏畢」이라는 印出記가 있는 갑인자 번각본이 있어 그 판각 연대는 1530년으로 추정된다.

있다.⁴⁹⁾ 그리고 이송된 판목은 틀린 곳이 많아 세종대에 편찬된 주석서인 思政殿訓義 「資治通鑑綱目」을 기본으로 柳希春이 주도하여 교정하였다.⁵⁰⁾ 1578년(宣祖 11)에 綱目」을 인출하던 도서관 관원이 종이 손실을 이유로 과직되고 있어⁵¹⁾ 이 때 간행이 이루어져 1578년(宣祖 11) 4월에 金誠一에게 내사되었다.⁵²⁾ 그 내사본을 살펴보면, 갑인자를 번각한 것과 그렇지 않은 판이 혼재되어 있다.

한편 「綱目書法」, 「綱目集覽」, 「綱目發明」 등과 같은 「資治通鑑綱目」의 주석서도 전래, 간행되었다. 劉友益(元)의 「綱目書法」은 世宗이 1435년 8월에 聖節使로 北京에 가는 南智에게 구입해 오도록 한 기록이 보이며,⁵³⁾ 「資治通鑑綱目發明書法」은 갑인자로 인출되었다.⁵⁴⁾ 王幼學(元)의 「資治通鑑綱目集覽」과 尹起莘(宋)의 「資治通鑑綱目發明」은 1502년(燕山君 8)에 「資治通鑑綱目」과 함께 각 권말에 각각 합본되어 癸丑字로 인출되었다.⁵⁵⁾ 瞿佑(明)가 3권으로 편찬한 「資治通鑑綱目集覽鑄誤」도 성·명종 연간에 을해자로 인출되었다.⁵⁶⁾

이외에도 尙輅(明) 등이 明 憲宗의 命에 따라 1476년 11월에 「續資治通鑑綱目」⁵⁷⁾ 27권을 편찬하였는데, 「資治通鑑綱目」을 이어 960년부터 1367년까지 역사를 강목체로 續撰한 것이다. 1490년(成宗 21) 3월에 사신으로 갔던 尹孝孫이 중국에서 「續資治通鑑綱目」을 求得하여 바친 기록이 있어⁵⁸⁾ 편찬된 지 14년 만에 전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1503년(燕山君 9) 5월에 갑인자로 인출되어 형조

49) 「宣祖實錄」, 卷8, 宣祖 7년 11월 丙申條, 同年 12월 辛丑條.

50) 「宣祖實錄」, 卷8, 宣祖 7년 12월 壬寅條.

51) 「宣祖實錄」, 卷12, 宣祖 11년 7월 辛酉條.

52) 內賜記: 萬曆六年四月日 內賜 成均館直講 金誠一 資治通鑑綱目 一件 命除謝恩 都承旨 臣 尹[手決](안동 학봉 종택 소장).

53) 「世宗實錄」, 卷69, 世宗 17년 8월 癸亥條.

54) 金允植, “世宗朝의 圖書 編撰 및 刊行에 관한 研究,”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39).

55) 국립중앙도서관, 고려대 도서관 소장.

56) 李春熙, 「李朝書院文庫目錄」, 12(도산서원 소장).

57) 이 연구에서는 宋名臣言行錄이 李幼武(宋)에 의하여 속찬되어 함께 간행되어 주자의 저술로 다루어지는 것처럼 강목체로 속찬된 續資治通鑑綱目 과 「綱目前編」 또한 주자 저술에 대한 속찬서로 판단되어 주자의 저술에 포함하였다.

58) 「成宗實錄」, 卷238, 成宗 21년 3월 丙辰條.

판서 金壽童(1457-1512)에게 內賜되었고,⁵⁹⁾ 1504년 1월에는 목판으로 간행되기도 하였다.⁶⁰⁾

3.3 宋名臣言行錄

주자는 43세 되던 1172년에 「五朝名臣言行錄」 10권과 「三朝名臣言行錄」 14권을 편찬하였다. 주자 생전에 麻沙에서 간행이 이루어졌고, 이후 李衡(明, ?-1245)에 의하여 교정되었으며, 理宗(在位: 1225-1259) 때 사람인 李幼武(宋)에 이르러 皇朝名臣言行錄」 8권, 「四朝名臣言行錄」 26권, 「皇朝道學名臣言行錄」 17권이 증보된 이후 각각 <前集>, <後集>, <續集>, <別集>, <外集>의 75권으로 합쳐져 간행되었다.

편찬 목적은 世教에 도움이 되기 위함인데, 이는 유교적 이데올로기의 정립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을 북송 명신들의 언행에서 찾고 이를 편집, 간행, 유포하여 유교적 대의명분에 기여할 기본 교재를 편찬하고자 문집과 전기 자료를 중심으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방향으로 명신들의 언행을 기록하고 있다.⁶¹⁾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성리학에 입각한 이상적 신료의 표본을 제시하고 있는 宋名臣言行錄은 성리학을 근간으로 하여 개국한 조선에서도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수입과 간행이 이루어졌다.

조선으로의 전래 기록은 없으나 경자자본이 전하고 있어 세종 이전에 전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전래된 저본과 관련해서는 17세기 초 인출의 秋香堂木活字本까지는 朱子の 서문에 앞서 李衡이 교정한 과정을 설명한 李居安의 서문과 李幼武에 의한 간행 경위를 설명한 趙崇陞 서문이 실려 있다. 趙崇陞 서문에 의하면, 외손 李士英(李幼武)이 宗人 太平老圃(李衡)에게 받은 八朝名臣言行錄을 우선

59) 李廷燮, “鶴峰 金誠一宗孫家所藏典籍-指定文化財 中心으로,” 『季刊書誌學報』 제2집(1990), 88.

60) 장동익, “1575년(宣祖8) 日本 使臣團에 관련된 古文書資料 檢討,” 『역사교육논집』 제35집(2005), 270-271(刊記: 弘治甲子孟春 慎獨齋新刊行, 日本 足利學校遺蹟圖書館 所藏).

61) 辛承云, “朱子の 名臣言行錄 편찬과 그 資料,” 『季刊書誌學報』 제22집(1998), 53-54.

간행하고, 다시 四朝 名臣의 行事를 蒐閱하여 全編을 마치고 나에게 이를 보여주었다고 한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1261년에 李幼武가 정리한 <前集>, <後集>, <續集>, <別集>, <外集>의 75권이 처음 간행되었으며, 이것이 조선에 전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 전기의 간행을 살펴보면 우선 세종 연간에 庚子字로 인출되었고,⁶²⁾ 성종 연간에는 甲辰字로 인출되었다.⁶³⁾ 1502년(燕山君 8)에는 慶尙道觀察使 金應箕 주도로 경자자본의 飜刻이 淸道에서 이루어졌다.⁶⁴⁾ 경자자 번각본 卷末의 淸道 郡守 李胤의 跋文에 의하면, 友人 崔子眞으로부터 책을 얻어 보니 古人이 立身하여 主君을 섬기는 큰 방도를 알게 되었고, 聖朝의 儒雅와 文德을 崇獎함을 생각하면 이 책의 판본이 없는 것은 사람의 불행이라 하고, 監司 金應箕(1457-1519)에게 간행을 청하여 列邑에서 나누어 판각을 시작, 監司 安潤德(1457-1535)이 이어 마무리하였다.

<1502년(燕山君 8) 淸道 刊本の 卷末 記錄>

行觀察使 資憲大夫 兼兵馬水軍節度使 金應箕
 都事 承訓郎 方有寧
 行郡守 中直大夫 李潤
 校正 生員 成濬達
 貢生 金席珍
 金世衡
 金世紀
 金保衡

明·宣祖 年間에는 乙亥字로 인출되었는데,⁶⁵⁾ 고려대 소장의 을해자본 皇朝 道學名臣言行錄外集」에는 표지의 이면에 ‘隆慶元年(1567)六月...’의 古文書가

62) 고려대 도서관 소장.

63) 계명대 동산도서관 소장(板式: 四周雙邊, 半郭 20.6×14.4cm, 有界, 12行19字, 黑口, 內向黑魚尾).

64) 李仁榮, 『淸芬室書目』(서울: 寶庫社, 1993), 152-153.

65) 李春熙, 『李朝書院文庫目錄』, 16.

補接되어 있어 인출 연도는 그 이후이고, 補字가 다량 혼입되어 있으므로 乙亥字의 補鑄가 이루어지는 1573년 이전으로 보인다.

4. 子部 著述

4.1 「延平答問」

주자가 延平 李侗을 만난 것은 1153년부터 李侗이卒한 1163년까지 11년 동안인데, 그 사이에 서신으로 묻고 답하였던 내용을 모아 직접 편정한 것이 延平答問이다. 수록 기간은 1157년 6월 20일부터 1163년 7월 28일까지이고, 여기에 李侗의 <與劉平甫書> 2개가 추가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후대에 주자의 문인이 주자가 李侗을 논한 어록과 제문, 행장을 모아 <後錄> 1권으로 더하였고, 1495년(弘治 8)에는 嚴州守 周木이 「延平答問」을 校正, 刊行하면서 <後錄>의 미비한 것을 보완하여 「朱子大全」 등에서 관련 내용을 모아 <補錄> 1권을 더하여 간행하였으며, 1513년(正德 8)에는 李侗의 14世孫 李翥이 발문을 붙여 중간하기도 하였다.

조선전기의 간본으로는 1554년(明宗 9) 청주 간본과 1556년(明宗 11) 순천 간본이 있으며 모두 이황의 문인 李禎에 의하여 간행되었다. 淸州 간본⁶⁶⁾의 李滉 발문에 의하면, 李滉이 朴希正에게서 이 책 3편을 얻어 보고 책의 간행을 의논하던 중 마침 淸州牧使 李禎이 京師에 와 있었으므로 그에게 간행을 부탁하였다. 李禎은 청주로 돌아간 지 수개월 만에 판각을 마무리하고 李滉에게 跋文을 부탁하여 李滉이 1544년(中宗 39) 9월에 발문을 작성하여 同年 겨울에 完刻하였다. 권말에는 刻手 羅連祥, 書寫 校正 宋世渾 등 간행 관련 인물의 기록이 있다. 또한 李禎은 1556년(明宗 11)에는 順天都護府使로 부임하여 順天府에서도 간행하였다.⁶⁷⁾ 순천부 간본의 권말에는 全羅道觀察使 柳昌門 등 간행관련 참여 인물

66) 刊記: 嘉靖甲寅(1554)冬淸州牧開刊(충남대 도서관 소장).

67) 刊記: 嘉靖丙寅(1566)春順天府開刊(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기록이 판각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556년(明宗 11) 順天府 刊本の 卷末 記錄>

嘉善大夫 全羅道觀察使 兼兵馬水軍節度使 柳昌門
奉訓郎 都事 兼春秋館記注官 李士英
通政大夫 行順天都護府使 順天鎮兵馬僉節制使 兼監牧 李禎
奉訓郎 府教授 李亨南
書寫 校正 幼學 張靑星
監督 府人 朴謙
刻手 金世光 / 朴命孫
僧 寶仁 / 敬熙 / 妙云 / 性云 / 祖雄
木手 閑石孫

4.2 「近思錄」

「近思錄」은 呂祖謙이 1175년(淳熙 2) 寒泉精舍에 머물던 주자를 찾아왔을 때 周敦頤, 程顥, 程頤, 張載의 저술을 함께 읽으며 그 가운데 大體와 관련되고 일용에 절실한 것을 가려 622조 14편으로 공찬한 것이다.

近思錄 은 편찬 이후 楊伯喆(宋)의 「近思錄衍註」, 葉采(宋)의 「近思錄集解」 등 여러 종의 주석서가 편찬되었으나 조선시대에는 섭채의 「近思錄集解」가 전래, 간행되었다. 「近思錄集解」는 섭채가 30년 이상 「近思錄」을 刪定하여 1248년(淳祐 8)에 완성한 것으로, 이의 조선시대 판본에 대해서는 강순애⁶⁸⁾에 의하여 갑인자본, 갑인자훈입자본, 무신자본과 이들 활자본의 번각본에 대하여 전반적인 연구가 있었다.

葉采의 「近思錄集解」는 1370년(恭愍王19) 晉州牧使 李仁敏이 牧使로 부임하여 간행한 元本の 飜刻本이 전한다.⁶⁹⁾ 조선시대에는 1436년(世宗 18) 金汶이 校閱을 주관하여 甲寅字로 인출되었고, 이를 저본으로 1519년 전라도 求禮의 鳳城精舍,⁷⁰⁾ 1566년 中和의 淸涼書院,⁷¹⁾ 1578년 禮山縣⁷²⁾에서 번각되었다.

68) 강순애, “初鑄甲寅字本 近思錄 과 관련 板本 研究,” 書誌學研究 제24집(2002), 161-189.

69) 봉화의 沖齋 權檣(1478-1548) 종택과 숙명여대 박물관 등 소장.

1518년(中宗 13)에는 金希壽의 啓請⁷³⁾으로 인출, 반포하게 하였다. 이 때 인출된 것으로 보이는 목활자 혼입의 갑인자본이 전하고 있다. 이를 저본으로 1581년(선조 14)에 밀양의 估畢書院⁷⁴⁾에서 번각되기도 하였다. 한편 선조 연간에는 庚辰字로 인출되기도 하였으며, 비슷한 시기에 함경도 文川郡⁷⁵⁾에서 간행되었다. 『攷事撮要(1568)』에는 陝川에도 책판 소장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이외에도 張伯行(明)은 『近思錄』의 예에 따라 주자의 저술에서 긴요한 부분을 뽑아 『續近思錄』 14권을 1710년(肅宗 36)에 편찬하기도 하였다. 이 책의 조선시대 간행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나 주석서의 저술, 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汪佑(淸)는 丘濬의 『朱子學的』, 高攀龍의 『朱子節要』를 참조하여 기존의 周敦頤, 程頤, 程顥, 張載의 저술에 주자의 저술까지 추가하여 『五子近思錄』을 편찬하였고, 芸閣印書體字本과 목판본 1종이 전하고 있다.

4.3 「小學」

『小學』은 주자가 58세 되던 1187년(淳熙 14) 3월에 제자 劉清之(1134-1190, 字 子澄)와 함께 6篇으로 편찬한 兒童用 修身書이다. 이에 대해서는 권오석,⁷⁶⁾ 정재영,⁷⁷⁾ 김항수,⁷⁸⁾ 신정엽⁷⁹⁾ 등이 서당 교재 연구, 국어사 연구, 사림의 서적 편찬 연구, 서지학적 판본 연구의 측면에서 연구가 있었다.

『大學』은 孔門으로 전해졌으나 『小學』은 그렇지 못하여 주자가 聖經賢傳과

70) 刊記: 正德己卯夏鳳城精舍刊.

71) 刊記: 嘉靖丙寅郡守安瑞刊藏中和清涼書院.

72) 刊記: 禮山縣 開刊.

73) 『中宗實錄』, 卷34, 中宗 13년 7월 癸亥條.

74) 刊記: 萬曆辛巳夏估畢書院刊.

75) 刊記: 文川郡.

76) 권오석, “書堂教材의 刊行에 관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 대학원, 1994).

77) 정재영, “飜譯小學 권3·4에 대하여,” 『季刊書誌學報』, 제24집(2000), 147-227.

78) 김항수, “16세기 士林의 性理學理解-書籍의 刊行·편찬을 中心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81).

79) 신정엽, “朝鮮時代 小學의 간행과 版本,”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2008).

3대 이래의 嘉言善行을 엮어 「小學」을 저술하였으며, 조선시대에는 8세가 되면 누구나 「小學」에 입문하게 하였다.⁸⁰⁾

「小學」의 편차는 宋史 <藝文志> 등에는 4권으로 되어 있고, 元代 이후에는 10권본과 6권본으로 나타나는데,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것은 10권본과 6권본이다.

「小學」에 관해서는 1330년(忠肅王 17) 12월에 「小學」에 통달한 뒤에 과거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기록이 있어 小學은 그 이전에 이미 우리나라에 전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小學」의 이해를 돕기 위한 「小學集成」, 「小學集說」 등의 주석서가 입수되는 단계로 발전하였다.

「小學」의 간행과 관련해서는 우선 1427년(世宗 9) 7월에 江原監司 鄭孝文이 새로 간행된 小學을 進上한 기록⁸¹⁾이 있다. 「小學大文」의 漢文懸吐本도 庚子字로 인출된 이후 翻刻도 이루어졌으며,⁸²⁾ 경자자 번각본과는 다르며 明本 翻刻本으로 추정되는 임란 이전 판본도 전한다.⁸³⁾

何士信(明)의 「集成小學」은 禮曹의 啓에 의하여 1425년(世宗 7) 12월에 100권을 中國에서 구입하도록 하였는데, 그 이유로 四部學堂에서 「小學」을 가르치는데 우리나라 「小學」은 音訓과 註解가 未備하고 音訓과 註疏가 갖추어진 「集成小學」이 이해가 쉽기 때문이라고 하였다.⁸⁴⁾ 전래 후 3년 뒤인 1428년 9월에는 許稠의 啓請에 의거 그가 이전에 올린 「集成小學」을 鑄字所에서 인출하게 하였다.⁸⁵⁾ 이때의 인출본은 1435년에 허조가 鑄字所의 「集成小學」 책판을 언급하고 있고,⁸⁶⁾ 세종 연간에 인출된 것으로 보이는 明本 翻刻本⁸⁷⁾이 전하고 있기 때문에 明本을 번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436년(世宗 18) 5월에는 金汶 등의 校正을

80) 「太宗實錄」卷25, 太宗 13년 6월 丁丑條.

81) 「世宗實錄」卷37, 世宗 9년 7월 丁亥條.

82) 李仁榮, 「淸芬室書目」, 35.

83) 板式: 四周雙邊, 半郭 21.7×14.3cm, 有界, 8行17字, 大黑口, 上下下向黑魚尾(경기대 도서관 소장).

84) 「世宗實錄」卷30, 世宗 7년 12월 戊子條.

85) 「世宗實錄」卷41, 世宗 10년 9월 丁巳條.

86) 「世宗實錄」卷68, 世宗 17년 4월 己酉條.

87) 고려대 도서관 만송문고 소장.

거쳐 甲寅字로 인출되었고, 그 번각도 이루어졌다. 『攷事撮要(1585)』에 의하면綾城에 冊板이 소장된 기록이 있다. 『集成小學』은 1518년(中宗 13) 通文館의 啓에 의하여 金詮, 崔淑生 등이 「小學」의 大文을 언해한 「翻譯小學」 10卷의 底本이 되기도 하였다.

程愈(明) 등이 1486년(成宗 17)에 6권으로 완성한 小學集說」은 1491년(成宗 22)에 중국에 사신으로 갔던 金駟孫(1464-1498)에게 전해져 귀국 후 刊布⁸⁸⁾되었는데, 성종 연간에 6권 2책의 木活字로 간행되었다.⁸⁹⁾ 중종 연간에는 乙亥字로 5회 간행되었다. 첫째는 본문에 구결이 없이 구두점만 있는 것으로 이후 이 책은 1600년(宣祖 33)에 竹川書堂에서 翻刻되기도 하였다.⁹⁰⁾ 둘째는 諺吐를 붙인 것인데, 본문에 있는 것⁹¹⁾과 書尾에 있는 것⁹²⁾이 있는데, 이 가운데 書尾에 언토가 있는 것은 번각되기도 하였다.⁹³⁾ 셋째는 한문 차자 구결을 붙인 것인데, 이 또한 본문에 있는 것과 書尾에 있는 것 2종이 모두 인출되어 개인 소장으로 전하며 2종 모두 번각되었다.

<1600년(宣祖 33) 竹川書堂 刊本の 卷末 記錄>

資憲大夫 全羅道觀察使 兼都巡察使 韓孝純
資憲大夫 兼三道統制使 李時言
嘉善大夫 全羅道兵馬節度使 廣南君 李光岳
奉訓大夫 兼寶城郡守 金克悌
都有司 朴根孝 趙琪 田汝滂 宣仁厚 李命男 安廷善
分管有司 孫汝興 朴根悌 宣廷幹 金忠漢 安邦悅 金俊民 吳德洽
 金俊 韓文起 朴春豪 宋廷鳳 任滉 黃元福 宣敏中
 魏麟趾 朴柴
校正 宋文郁 書寫 金紀南 林廷一
 都色 白長源

88) 『濯纓先生文集』 卷2, <感舊遊賦後序>.
89) 沈暎俊, 日本訪書誌 (城南: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8), 58-59(일본 궁내청서릉부 소장).
90) 刊記: 萬曆庚子春山陽竹川書堂刊.
91) 계명대 동산도서관 소장.
92) 성암고서박물관 소장.
93) 李仁榮, 『淸芬室書目』, 36.

「攷事撮要(1568)」에 의하면 安東에 「懸吐小學」의 책판이 있었는데, 책판 목록에는 「小學」의 주석서까지 모두 ‘小學’으로 적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이는 위에서 언급한 小學集說」의 현토본으로 보인다. 선조 연간에는 書尾에 諺吐가 있는 庚辰字로 인출되었다.⁹⁴⁾ 「小學集說」은 1587년(宣祖 20) 壬命으로 이루어진 「小學諺解」의 底本이 되었다.

이외에도 1473년(成化 9)에 편찬된 陳選(明) 「小學集註」(初名 「小學句讀」) 6권도 전래되어 1451년(文宗 卽位年) 12월에 甲寅字로 간행되었다.⁹⁵⁾ 吳訥(明)의 小學書集解」 10권도 16세기에 甲寅字⁹⁶⁾로 인출되었고, 1554년(明宗 9)에도 乙亥字로 인출되어 僉知中樞府事 李滉에게 內賜되었으며,⁹⁷⁾ 임란 이전의 목판본도 전하고 있다.

「攷事撮要(1568)」에 의하면 水原, 昆陽에 「小全小學」, 春川, 光州, 平壤, 谷山, 全州, 全州(別), 昌平, 咸平, 海州에 「小學」, 淸州에 「小學大全」, 安東에 「小學後錄」의 책판이 있었으며, 「攷事撮要(1585)」에 의하면 大邱, 南原, 錦山에 「小學」의 책판이 있었다.

4.4 「朱子語類」

朱子는 白鹿洞書院, 武夷精舍, 岳麓書院, 滄州精舍 等地에서 문도들에게 학을 하였는데, 제자들이 그 어록을 기록하여 세상에 널리 확산되었다. 그러나 각자 기록한 바의 詳略에 異同이 있어 문인들에 의한 수집, 재편을 거쳐 1270년에 黎靖德이 「朱子語類」 140권을 類編하였다.

「朱子語類」의 전래와 관련해서는 1476년(成宗 7) 5월에 謝恩使 鄭孝常 등이

94) 李春熙, 「李朝書院文庫目錄」, 111(병산서원 소장).

95) 金斗鍾, 「韓國古印刷技術史」(서울: 탐구당, 1974), 147.

96) 영남문화연구원, 「한국고문헌종합목록연구 3차년도 사업 결과보고서 (대구: 영남문화연구원, 2008), 139.

97) 內賜記: 嘉靖三十三年十二月日 內賜 僉知中樞府事 李滉 小學集解 一件 命除謝恩 右承旨 臣 李[手決](성암고서박물관 소장).

돌아와 「朱子語類」와 「朱子大全」을 바친 기록이⁹⁸⁾ 있는데, 이는 鄭孝常이 진상하면서 ‘근래에 찬하였다’고 하였고, 본문의 체제로 볼 때, 1473년(成宗 4) 陳煒 발문이 있는 成化刊本으로 보인다. 이후 1481년, 1482년, 1518년에도 使行을 다녀오면서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기도 하였다.⁹⁹⁾

1476년에 수입된 이후 1515년까지는 간행되지 않은 듯 하며, 1515년에 와서 중종이 간행을 命하기는 하였으나¹⁰⁰⁾ 간인본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조선시대에 처음 간인된 「朱子語類」는 1544년(中宗 39) 6월에 盧守愼에게 內賜된 12행 21자의 丙子字本¹⁰¹⁾으로 보이며, 그 底本은 1473에 작성된 彭時의 서문, 張元禎의 후서, 陳煒의 발문이 있는 1473년 成化刊本이다. 이후 李滉의 교정을 바탕으로 柳希春, 趙憲이 다시 교정하여 1575년(宣祖 8) 13행 22자의 丙子字로 인출되었다.¹⁰²⁾

한편 黎靖德의 「朱子語類」 이외에 黃榦의 문인인 葉士龍(宋)이 편찬한 晦菴先生語錄類要」 18권도 전래, 간행되었다. 고려대 소장본에 ‘책판이 본래 호남의 담양에 있었는데 1576년(宣祖 9)에 崔應龍이 감사가 되었을 때 그것을 빌려 인쇄하였다’는 潭陽 간행 기록¹⁰³⁾과 攷事撮要(1585)에 「朱子語錄」 책판이 潭陽에 소장되어 있었으므로 1576년 이전에 潭陽에서 판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계명대에 소장된 동일 판본을 살펴보면, 黑口에 月招, 인, 戒, 而, 二, 天人, 坦 등의 刻手名이 보이는데, 한글로 새겨진 각수명 ‘인’은 月印釋譜」의 번각본에도 나타나고 있어 간행 시기의 근거가 된다.

98) 「成宗實錄」 卷67, 成宗 7년 5월 乙卯條.

99) 「中宗實錄」 卷128, 中宗 12년 4월 己巳條, 「中宗實錄」 卷139, 中宗 13년 3월 丙子條, 「宣祖實錄」 卷8, 宣祖 7년 4월 丁卯條.

100) 「中宗實錄」 卷23, 中宗 10년 11월 丙戌條.

101) 內賜記: 嘉靖二十三年六月日 內賜世子侍講院右司書盧守愼朱子語類一件 命除謝恩 都承旨臣鄭(靜嘉堂文庫 所藏).

102) 內賜記: 萬曆三年五月日 內賜 司諫院正言 裴三益 朱子語類 一件 命除謝恩 左承旨臣 鄭[手決].

103) 裡紙記: 本在湖南之潭陽萬曆四年丙子(1576)崔見叔今公爲監司時借印(고려대 晩松文庫 소장).

4.5 「周易參同契考異」

魏伯陽(後漢)이 古文 「龍虎經」을 얻어 妙旨를 터득하고 「周易」을 요약하여 「周易參同契」 3편을 편찬하였는데,¹⁰⁴⁾ 일종의 도교서이다. 주자는 이에 대한 주석서 가운데 彭曉(後蜀)의 「周易參同契通眞義」를 기초로 본문을 비교하여 「周易參同契考異」를 저술하였다.¹⁰⁵⁾ 이후 1305년에 黃瑞節(元)이 부록을 추가하여 「朱子成書」에 편입시켜 1341년 간행되었으며, 俞琰(元, 1258-1314)은 黃瑞節의 부록이 추가된 「周易參同契考異」에 근거하여 다시 주석을 추가하여 「周易參同契發揮」를 저술하였다.

조선시대에는 「朱子成書」의 을해자본 일부(「易學啓蒙」과 「律呂新書」)가 남아 있어 黃瑞節(元) 부록의 「周易參同契考異」가 총서의 한 부분으로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俞琰(元)의 「周易參同契發揮」은 甲寅字의 번각본¹⁰⁶⁾이 전하고 있고, 그 底本이 되는 갑인자본은 판식으로 볼 때 세종 연간에 인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5. 集部 著述

5.1 「謝上蔡先生語錄」

北宋의 학자인 上蔡 謝良佐는 呂大臨, 楊時, 游酢와 함께 程門 四先生의 한 사람인데 주자가 그의 語錄을 모아 3편으로 定校한 것이다.

편찬 과정을 살펴보면, 주자가 括蒼 吳任에게서 寫本 「上蔡先生語錄」 1편을 얻고, 다시 吳中에게서 판본 1편을 얻었는데 모두 溫陵 曾恬이 기록한 것이고,

104) 彭曉, 「周易參同契通眞義」의 序文.

105) 박병수, “「周易參同契」의 성립과 그 성격,” 「정신개벽논집」 제15집(1996), 184-185

106) 板式: 四周單邊, 半郭 25.1×16.7cm, 有界, 10行18字, 上下下向黑魚尾.

마지막으로 胡安國의 집에서 「謝子雅言」 寫本 2편을 얻어 이들을 서로 參校하여 「謝上蔡先生語錄」을 완성하였다.¹⁰⁷⁾

조선시대에는 許鳳翎(明)의 1514년 <重刊上蔡謝先生語錄後敘>가 있고, 권수면 제2행에 '崇陽王疇校增'가 있는 1522년 上蔡 간행본¹⁰⁸⁾을 底本으로 하여 두 차례 간행이 이루어졌다. 첫 번째 간행은 중종 연간에 甲辰字로 인출된 것이며, 두 번째 간행은 선조 이전에 목판본으로 간행된 것이다.¹⁰⁹⁾

5.2 「二程全書」

「二程全書」는 宋代의 유학자 程顥(1032-1085), 程頤(1033-1107) 형제의 문집인데, 二程은 孟子를 이어 도학을 이은 인물이다.

「二程全書」 가운데 <遺書>, <遺書附錄>, <外書>는 주자가 程門 제자의 手記를 모아 편집한 것이고, <粹言>은 楊時(宋) 訂定, 張栻(宋) 編次이다. 「明道文集」, 「伊川文集」은 胡安國(1074-1138)의 집에서 나왔는데 주자가 편집을 하였고, <易傳>, <經說>도 주자가 편집을 하였다. <遺文>은 1323년 譚善心(明)이 수집하여 繕寫하고 서문을 붙인 것이고, <續附錄>은 「二程全書」의 편찬, 간행과 관련된 기록을 모은 것이다. 「二程全書」는 宋代부터 간행되었던 <遺書>, <外書>, <經說>, <文集>에 譚善心이 수집한 <遺文>, <遺事>를 합하여 「二程全書」라는 題名이 붙어 天順年間(1457-1465)에 南陽에서 처음 간행되었고, 1498년에는 河南 監察御使 李瀚의 주도로 康紹宗(明)의 重編과 彭綱(明)의 校正을 거쳐, 河南府知府 陳宣(明)이 重刊하였다.

조선시대에는 李瀚의 중간본이 전래되어 甲辰字 混入 補字로 印出이 이루어져 1566년(明宗 21)에 朴承任에게 내사되었고,¹¹⁰⁾ 임란 이전 목판본¹¹¹⁾ 1종도

107) 「朱子大全」 卷75, <謝上蔡語錄後序>.

108) 刊記: 時嘉靖壬午(1522) 秋九月吉旦 知上蔡事解 梁史臣 重刊.

109) 李廷燮, “鶴峰 金誠一宗孫家所藏典籍-指定文化財 中心으로,” 「季刊書誌學報」 제2집 (1990), 97.

110) 內賜記: 嘉靖四十五年五月日 內賜 承政院左副承旨 朴承任 二程全書 一件 命除謝恩

전하고 있다. 이 목판본은 中宗이 八道에 분장 관각을 명한 결과¹¹²⁾로 관각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攷事撮要(1568)』에 의하면 大邱에 책판이 있었다.

<표 1> 「二程全書」의 구성

구 성	비 고
遺書 28권(권1-28)	朱子 編輯
遺書附錄 1권(권29)	
外書 12권(권30-39)	
粹言 2권(권40-41)	楊時 訂定
易傳 4권(권42-45)	朱子 編輯
經說 8권(권46-53)	朱子 編輯, 不錄
明道文集 5권(권54-58)	朱子 校正
伊川文集 8권(권59-66)	
遺文 1권(권67)	1323년 譚善心 序
續附錄 1권(권68)	편찬 관련 기록

5.3 「朱子感興詩」

주자가 41세 되던 1170년(乾道 6)에 建陽縣의 雲谷에 草堂을 짓고 晦庵이라고 하고, 그 후 10년간 주자의 사상이 확립되었는데, 이 시기인 44세 무렵에 학문 정신과 사상을 詩歌에 기탁한 것이다.¹¹³⁾

조선시대에는 「文公朱先生感興詩」란 서명으로 庚子字로 인출되었는데, 卞季良의 <庚子字鑄字跋>에 이어 ‘宣德四年己酉九月 日印’이라는 인출기가 있어 세종 11년(1429) 9월에 주자소에서 인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1553년(明宗 8)에는 淸洪道觀察使 李夢亮의 후원으로 淸州牧使 李楨이 淸州

同副承旨 臣 朴[手決].

111) 板式: 四周單邊, 半郭 19.2×14.6cm, 有界, 10行21字, 註雙行, 大黑口, 上中下向 下上向黑魚尾(개명대 소장).

112) 「中宗實錄」 卷23, 中宗 10年 11月 丙戌條.

113) 申美子, “朱子 感興詩 研究(1),” 『中國語文學論集』 제11집(1999), 221-222.

에서 목판으로 간행하였는데, <感興詩>에 이어 ‘擬古八首’, ‘雲谷雜詩十二首’, ‘武夷權歌十首’ 등이 수록된 <增錄>이 추가되어 있다. 권말에는 간행의 저본이 되었던 1304년(大德 8)의 劉槩(元)의 발문, 1555년(明宗 10) 李楨의 識文, 1553년(明宗 8)의 金忠甲의 발문, 李滉의 발문, 1554년(明宗 9)의 李楨의 발문이 수록되어 있다. 발문의 기록들에 의하면 <感興詩> 20편은 蔡模(南宋)가 註解, 句義하였는데, 牧伯 李楨이 鑄字本¹¹⁴⁾ <註解>를 얻고, 이를 모아 교정¹¹⁵⁾을 거쳐 定本을 만들었고, 뜻을 같이하는 사람과 함께 監司 李夢亮에게 고하여 <增錄>을 더하여 간행하였다. 권말에 간기¹¹⁶⁾와 함께 관여 인물이 관각되어 있다.

<1553년(明宗 8) 淸州牧 刊本の 卷末 記錄>

嘉善大夫淸洪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 李夢亮
奉直郎淸洪道都事 梁喜
通訓大夫淸州牧使淸州鎮兵馬僉節制使 李楨
通訓大夫行淸州判官淸州鎮兵馬節制都尉 韓蕙
中訓大夫行淸州教授 吳詮
書寫校正貢生 宋世渾
刻手 鎮峯 金巨公
懷德 僧三俊
淸州 五十同

5.4 「朱文公校昌黎先生集」

이 책은 주자가 「昌黎先生文集」을 바탕으로 이를 辨證한 것인데, 1197년(慶元 3)에 서문을 붙여 완성한 것이다.

韓愈(唐)의 문집은 그의 제자 李漢方이 편찬하였고, 南宋 孝宗 때에 崧卿이 금석문과 여러 문헌을 참조하여 韓集舉正」 10권과 「外集舉正」 1권을 撰成하였

114) 庚子字本이 전하고 있고, 다른 활자 인본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경자자본으로 판단된다.

115) 李楨은 諸前本과 비교한 결과, 誤字 34, 落字 70, 衍字 20, 乙字 6으로 모두 130자를 刪改하여 定本을 마련하여 간행하였다.

116) 刊記: 嘉靖癸丑冬淸州牧開刊(규장각).

는데, 주자가 晩年인 1192년(紹熙 3)에 韓愈(唐)의 原意와 맞지 않은 것이 다수 있어 그 부분을 변증하여 10권으로 考異를 하였다. 주자 사후인 1227년(寶慶 3)에는 王伯大가 이를 重編하였는데, 洪興祖의 「韓愈年譜辨證」과 孫汝聽 등의 주해를 참조하고, 또 스스로 音釋을 만들어 각 편의 끝에 붙였으며, 1229년(紹定 2)에는 주자의 문인 張洽이 거듭 校訂을 하기도 하였다.¹¹⁷⁾

조선시대에는 1438년(세종 20)에 「資治通鑑綱目」과 함께 甲寅字로 인출되었고, 이후 세종 연간에 다시 甲寅字로 인출되었으며, 중종 연간에는 목활자가 혼입된 갑인자본과 병자자본이 인출되었다.

5.5 「楚辭集註」

楚辭」는 북방의 「詩經」에 대비되는 남방의 詩歌로 楚의 屈原(B.C. 343-277)에서 비롯되어 劉向(前漢)에 의하여 16권으로 寫定되었다. 여기에 王逸(後漢)이 자신의 작품 <九思>를 더하여 「楚辭章句」를 편찬하였고, 洪興祖(1090-1155)는 다시 이를 보완하여 楚辭補注」를 편찬하였다.¹¹⁸⁾ 주자는 이러한 王逸과 洪興祖의 주석서가 訓詁에는 정밀하나 작자의 旨意를 파악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刪去, 增入과 字句 등을 해석한 <集註> 8卷, 晁補之(1053-1110)의 「續楚辭」와 「變離騷」이 뜻보다는 修辭에 기울었다고 하여 이 가운데 52편을 選錄, 補定한 <後語> 6권, <集註>를 보충하여 王逸과 洪興祖 등 주석서의 오류를 밝힌 <辯證> 2권을 편찬하였다.¹¹⁹⁾ 편찬은 주자가 65세 되던 1194년에 시작하여 <集註>와 <辯證>은 1199년에 마쳤으나 <後語>는 前17篇은 註가 있으나 後35篇은 註가 없이 미완으로 되어 있던 것을 1212년 아들 朱在가 <遺稿>를 취하여 1217년에 <集註>, <辯證>과 함께 간행하여 세상에 유통되었다.¹²⁰⁾

117) 朱傑人 等, 「朱子全書」 19, 339-343.

118) 鄭振鐸의 <一九五三年人民文學出版社影印宋端平本跋>(朱傑人 等, 「朱子全書」 19, 333-334에서 재인용).

119) 金學主, “朝鮮刊「楚辭集註」簡說,” 「東亞文化」 제27집(1998), 3-5.

120) 朱傑人 等, 「朱子全書」 19, 1-5.

조선시대 전래와 관련해서는 1411년(太宗 11)에 司諫院의 상소 내용에, 三館의 職司를 받은 자는 「楚辭」 등에 통달하도록 奏請을 올리고 있어¹²¹⁾ 이때 이미 보편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간행은 1428년(世宗 10)에 세종의 명으로 「文章正宗」과 함께 鑄字所에서 印行하게 하였다.¹²²⁾ 현진본 가운데 이 시기에 주자소에서 간행된 것으로 庚子字本 중 <集註> 8권이 전하고 있어¹²³⁾ 1428년 인출본은 경자자본으로 추정되며, 이 경자자본은 1454년(文宗 2)에 密陽府使 李皎然이 密陽에서 번각하였다.¹²⁴⁾ 庚子字를 翻刻한 密陽 刊本の <後語> 目錄에 이어 “建安 虞信亨宅 重刊, 至治辛酉(1321)臘月印行”이라는 底本 刊記가 있어 조선시대 간본은 1321년 建安 虞信亨 重刊本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고, 이 刊記는 17세기 초의 訓鍊都監字本까지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15세기 간본으로는 세종 연간 元本の 翻刻本¹²⁵⁾과 조선 전기로 추정되는 목판본¹²⁶⁾이 전하고 있다. 10행 18자의 갑인자본과 그 번각본,¹²⁷⁾ 9행 16자의 甲寅字混入 補字本¹²⁸⁾도 전하고 있다. 「攷事撮要(1568)」에 의하면 平壤에 책판이 있었고, 이는 갑인자 혼입 보자본의 번각본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5.6 「朱子大全」

주자의 문집은 생존해 있을 때인 1189년(淳熙 16)과 1198년(慶元 4)에 두 차례 간행되었고, 사후에는 季子 在가 遺命을 받아 88권으로 편성한 것과 문인 黃士毅가 편찬한 「文公集」 50권, 「宋史藝文志」에 수록된 <前集> 40권, <後集> 91권,

121) 「太宗實錄」 卷22, 太宗 11년 11월 戊午條.

122) 「世宗實錄」 卷42, 世宗 10년 11월 庚申條.

123) 성암고서박물관 소장.

124) 刊記: 甲戌(1454)正月日密陽府開刊.

125) 板式: 四周單邊 半郭 19.3×12.0cm, 11行20字 註雙行. 內向黑魚尾(경북대 도서관 「楚辭集註」 8권 1책 소장).

126) 板式: 四周單邊 半郭 17.0×11.9cm, 無界, 9行18字 註雙行, 黑口, 內向2葉花紋魚尾(국립중앙도서관 소장).

127) 성균관대 존경각, 성암고서박물관에 번각본 소장.

128) 성균관대 존경각 소장.

<續集> 10권, <別集> 24권이 있다. 그러나 臺灣故宮博物館에 소장된 1189년 麻沙 간행의 晦庵先生文集 <前集> 11권, <後集> 18권 이외에는 현재 전하지 않는다.

현재 전하고 있는 주자 문집의 기본인 <原集> 100권은 1239년(嘉熙 3)에 王埜가 建安에서 간행하고 黃壯裕가 이어서 완성한 것인데, 후대 閩本, 浙本의 바탕이 되었다. 閩本은 1245년 王遂의 <續集> 10권과 1250년 徐幾의 <續集> 1권, 1263년 余師魯의 <別集> 10권으로 추가된 「晦庵先生朱文公文集」으로 1265년(咸淳 元年)에 建安書院에서 간행되었으며, 浙本은 <續集>과 <別集>이 없이 <原集>만으로 구성된 것이다. 이 양본 계통은 명, 청대에도 계속 간행되었고, 그 가운데 민본 계통으로 1460년에 賀沈, 胡緝이 建寧에서 重刊하여 朱子大全이라 서명을 붙인 天順本이 조선에 전래되어 간행, 유통되었다.

주자의 문집이 고려에 처음 소개된 것은 1289년(忠烈王 15)에 安珣이 燕京을 방문하였을 때 抄錄하여 온 것에서 시작된다. 이후 1427년(世宗 9)에 王命으로 慶尙道 監司에게 서적을 내려 보내고 「性理大全」의 예에 의거하여 관각하게 한 기록¹²⁹⁾이 있고, 세종 11년(1429)에는 安東의 尹妃가 「朱文公集」 32권을 진상한¹³⁰⁾ 기록이 있으나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조선시대에 널리 유통되어 주자학 연구를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되었던 原集 100卷, 續集 11卷, 別集 10卷 편차의 朱子大全 은 1476년(成宗 7) 謝恩使 鄭孝常이 「朱子語類」와 함께 ‘근래에 편찬하였다’하며 進上한 기록이 있고,¹³¹⁾ 1518년(中宗 13)에도 金安國이 중국에서 구입해 오기도 하였다. 金安國은 1518년(中宗 13) 「朱子大全」, 「朱子語類」, 伊洛淵源 등 주자의 저술을 구해와 그 간인을 청하였으나 시행되지 못하고, 기묘사화로 조정에서 물러났다가 1537년(中宗 32)에 校書館提調로 다시 敍用되어 「朱子大全」을 인출하였다.¹³²⁾ 이때의 인본은 補字가 다량 혼입된 乙亥字本인데, 1543년(中宗 38)에 權穰 등 대소 신료에게

129) 「世宗實錄」 卷37, 世宗 9년 9월 戊子條.

130) 「世宗實錄」 卷44, 世宗 11년 6월 壬寅條.

131) 「成宗實錄」 卷67, 成宗 7년 5월 乙卯條.

132) 柳希春, 眉巖日記草, 甲戌(1574) 4月 23日條.

내사되었다.¹³³⁾ 권벌은 이 때 「朱子大全」을 처음 보고, 글자 중심의 考疑를 하였으며,¹³⁴⁾ 봉화 종손가에 전하는 內賜本에는 墨書의 頭註로 반영되어 있다.

1575년(宣祖 8)에는 李滉의 교정본을 바탕으로 하여 柳希春의 교정을 거쳐, 補鑄한 乙亥字로 인출이 이루어졌다. 이 때 宣祖는 도서관에서 발행 부수를 묻자 5건은 進上하고, 100건은 國用으로 사용하도록¹³⁵⁾ 하였다.

이외에도 吳訥(明)이 巨帙의 「朱子大全」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7권으로 抄略한 晦庵文鈔 도 전래되어 1509년(中宗 4)에 尙州에서 牧使 金彥踰의 주도로 간행되었다.¹³⁶⁾ 「攷事撮要(1568)」에 의하면 尙州에 「朱晦庵集」라는 서명의 책판이 있었고, 海州에 晦庵詩文鈔로 기록된 책판이 있어 이 둘은 晦庵文鈔와 동일 서명으로 판단된다.

편자는 알 수 없으나 10권의 「晦庵先生朱文公詩集」도 15세기 후반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어미와 흑구의 분리, 상하단변·좌우쌍변 등의 형태로 볼 때 元本の 翻刻本으로 보인다.¹³⁷⁾ 흑구에 ‘一之’ 등 각수명이 있으며, 卷末에 <考異>를 추가하고 있다. 권수, 권말 사항이 없어 편자 및 간행에 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나 「攷事撮要(1568)」에 의하면 「朱子詩集」 책판이 慶州에 있어 그 책판으로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편자 미상의 「紫陽文集」 10권은 「攷事撮要(1585)」에 의하면 全州에 冊板이 있었다. 「眉巖日記草」에 의하면, 全羅道監司로 있던 柳希春이 1571년(宣祖 4) 4월에 天運紹統과 함께 潭陽의 집으로 보내었는데, 攷事撮要(1568)에는 소장 기록이 없으므로 그 사이에 판각된 것으로 추정된다.¹³⁸⁾

133) 內賜記: 嘉靖二十二年六月日 內賜 議政府左參贊 權機 朱子大全 一件 命除謝恩 都承旨 臣 洪[手決].

134) 「冲齋先生文集」 卷2, <朱子大全考疑>.

135) 「宣祖實錄」 卷7, 宣祖 6년 1월 庚戌條.

136) 규장각 소장.

137) 계명대 동산도서관 소장.

138) 천혜봉, 「일본 봉좌문고 소장 한국전적」(서울: 일지사, 2003), 297-298.

6. 分析

조선 전기 간행된 주자의 저술은 중국의 주석서를 포함하여 모두 18종의 저술이 148회 간행되었다. 이를 저술별, 판본별, 간행지역별, 간행주체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6.1 著述別 分析

주자의 저술 가운데 가장 많은 간행 회수를 보이는 것은 36회 간행이 확인되는 「小學」이다. 여기에는 소학의 이해를 위한 何士信(明)의 「小學集成」, 程愈(明)의 「小學集說」, 陳選(明)의 「小學集註」, 吳訥(明)의 「小學書集解」 등과 같은 주석서가 포함되어 있다.

이외에도 「孝經」은 주석서인 董鼎(元)의 「孝經大義」 2회를 포함하여 20회 간행되었고, 「家禮」는 주석서인 丘濬(明)의 「文公家禮儀節」 2회를 포함하여 13회 간행되었으며, 「近思錄」과 「童蒙須知」는 각 10회, 「資治通鑑綱目」은 각종 주석서를 포함하여 18회 조사되었다.

小學, 「孝經」, 家禮, 「近思錄」, 「資治通鑑綱目」이 많은 간행 회수를 보이는 것은 경연의 진강 교재, 관학의 교과서, 세자 교육을 담당한 시강원의 강학 교재로 그 활용도가 높았기 때문이었다. 즉 관학과 왕실 교육을 바탕으로 과거의 응시 과목으로 정형화함으로써 성리학의 정치이념을 확립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되는 저술을 중심으로 간행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표 2> 朱子 著述의 刊行 分布

서명	빈도(회)	비율(%)	비고
小學	36	24.3	
孝經	20	13.5	「孝經大義」만 활자로 간행
資治通鑑綱目	16	10.8	
家禮	13	8.8	

童蒙須知	10	6.8	활자본 없음
近思錄	10	6.8	
楚辭	7	4.7	
朱子大全	7	4.7	
伊洛淵源錄	4	2.7	활자본 없음, 李禎이 간행
宋名臣言行錄	4	2.7	
朱文公校昌黎先生集	4	2.7	
朱子語類	4	2.7	
周易參同契	3	2.0	
儀禮經傳通解	2	1.4	
延平答問	2	1.4	활자본 없음, 李禎이 간행
二程全書	2	1.4	
朱子感興詩	2	1.4	
謝上蔡先生語錄	2	1.4	
합 계	148	100	

6.2 版本別 分析

조선 전기에 148회 간행된 주자의 저술을 판본별로 살펴보면 목판으로 간행된 것이 97회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금속활자로 48회, 목활자로 2회, 판본 미상 1회로 조사되었다.

금속활자본으로는 아래의 <표 3>과 같이 갑인자가 가장 많은 18회, 을해자가 12회, 경자자가 6회 등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조선 초기부터 주자의 저술이 본격적으로 전래되었고, 중앙에서 주도하여 이를 교정하고 보급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이다. 97회에 달하는 목판의 판각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중앙에서 전국 각지로 반사된 활자본을 저본으로 하여 번각이 이루어진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사실은 대부분의 주자 저술이 관주 활자인 금속활자로 인출이 이루어졌지만 「童蒙須知」, 「伊洛淵源錄」, 「延平答問」, 「孝經刊誤」는 금속활자로 인출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위의 4종은 金安國, 李禎,

尹孝孫 등과 같은 지방관에 의하여 간행이 이루어졌다. 특히 李滉의 문인이었던 李禎은 淸州牧使로 부임하여 「朱子感興詩(1553)」, 「延平答問(1554)」, 「文公家禮儀節(1555)」을 간행하였고, 順天府使로 부임하여 「延平答問(1556)」을 간행하였으며, 慶州府尹으로 부임하여 「伊洛淵源錄(1562)」 등을 간행하는 등 주자의 저술을 집중적으로 간행하였다.

<표 3> 朱子 著述의 版本別 分布

판본	빈도(회)	비율(%)	비고	
金屬活字本	庚子字本	6	4.1	
	甲寅字本	18	12.2	
	乙亥字本	13	8.8	補鑄한 乙亥字本 2종 포함
	甲辰字本	3	2.0	
	癸丑字本	3	2.0	
	丙子字本	3	2.0	
	庚辰字本	2	1.4	
소계	48	32.5		
木活字本	2	1.4		
木板本	97	65.5		
未詳	1	0.7		
합계	148	100		

6.3 刊行地域別 分析

지역별로는 아래의 <표 4>와 같이 주자의 저술을 간행, 보급하려는 노력의 결과 中央에서 가장 많은 50회가 조사되었고, 경상도에서 31회, 전라도에서 27회, 평안도, 황해도, 충청도에서 각 7회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4> 朱子 著述의 刊行地域別 分布

간행 지역	빈도(회)	비율(%)
중앙	50	33.8
경상도	31	20.9
전라도	27	18.2
충청도	7	4.7
황해도	7	4.7
평안도	7	4.7
강원도	4	2.7
함경도	3	2.0
경기도	1	0.7
未詳	11	7.4
합계	148	100

7. 結 論

이 연구를 통하여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려 말부터 신홍사대부에 의하여 전래되기 시작한 주자의 저술은 조선 개국 초기에 왕조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世宗 등 국왕의 주도로 간행과 보급이 본격화되어 모두 148회 간행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저술별 간행 빈도는 「小學」, 「孝經」, 「家禮」, 「近思錄」, 「資治通鑑綱目」 등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성리학의 기본 서적으로 經筵, 召對, 書筵 등에서 국왕과 세자를 위한 進講 교재로 채택되었거나 조선시대 관학 교과서로 채택된 경우였다.

셋째, 판본별로는 목판본이 97회, 금속활자본이 48회, 목활자본이 2회로 조사되었다.

넷째, 간행지역별로는 중앙이 50회, 경상도 31회, 전라도 27회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중앙에서부터 주자 저술을 확대 보급하려는 노력과 함께 경상도와 전라도를

중심으로 서적 간행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섯째, 대부분 금속활자로 간행이 이루어졌으나 「童蒙須知」, 「伊洛淵源錄」, 「延平答問」, 「孝經刊誤」의 경우는 지방관에 의하여 목판으로 간행되고 있어 중앙과 지방의 관 중심으로 상호 보완적인 간행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여섯째, 주자의 저술이 편찬, 전래, 간행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났다.

- (1) 주자의 저술은 일부를 제외하면 미완성이라는 특징을 가졌으며, 이로 인하여 주자의 문인과 후학에 의하여 주자의 원래 저술을 바탕으로 많은 주석서와 續撰書가 편찬되었다. 그 결과, 주자의 원래 저술을 기본으로 주자의 문인과 후학에 의해 편찬된 주석서도 함께 전래, 간행되었다.
- (2) 고려 말부터 전래되기 시작한 주자 저술의 간행은 대부분 조선 초기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주자 개인의 저술이라기보다 왕조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성리학의 핵심 저술로 인식된 것으로 보인다. 주자 개인의 사상을 담고 있는 「朱子大畧」과 「朱子語類」 등은 16세기에 와서야 전래, 간행되므로 이때부터 주자의 사상을 거시적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 (3) 조선은 성리학을 근간으로 개국되었기 때문에 주자의 저술은 국가 차원에서 보급에 이루어져 대부분 관주 활자로 인출이 이루어졌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에서 목판으로 번각하는 방식으로 유통되어 조선시대 국가 주도의 서적 유통 방식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 (4) 비록 조선 초기에 元本, 明本이 전래되어 간행, 유통되었다 할지라도 宋名臣言行錄, 「資治通鑑綱目」 등과 같이 明, 淸에서 교정, 증보 형식으로 편찬, 간행이 이루어진 경우 이를 다시 수입하여 교정과 함께 간행함으로써 주자 저술의 연구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여섯째, 이 연구를 통하여 새롭게 소개되는 자료는 세종 11년(1429) 인출의 庚子字本 「文公朱先生感興詩」이다.

<참고문헌>

1. 單行本

- 金斗鍾. 韓國古印刷技術史. 서울: 탐구당, 1974.
- 김문식. 김정호, 조선의 왕세자교육. 서울: 박영사, 2003.
- 김치우. 고사촬요 책판목록과 그 수록 간본 연구. 서울: 아세아문화사, 2007.
- 束景南. 朱熹年譜長編. 上海: 華東師範大學出版社, 2001.
- 심우준. 日本訪書誌.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8.
- 王懋竑(清) 著. 何忠禮 點校. 「朱熹年譜」. 北京: 中華書局, 1998.
- 尹炳泰. 韓國古書綜合目錄. 서울:國會圖書館, 1968.
- _____. 「韓國書誌年表」.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72.
- 이동희. 주자; 동아시아 세계관의 원천.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7.
- 이성무. 한국 과거제도사. 서울: 민음사, 1997.
- 張伯偉. 朝鮮時代書目叢刊. 北京: 中華書局, 2004.
- 정옥자 등. 조선시대 사회사. 서울: 일지사, 2007.
- 鄭亨愚. 尹炳泰, 韓國의 冊板目錄. 서울: 보경문화사, 1995.
- 朱傑人 等. 朱子全書.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3.
- 朱子思想研究會. 朱子思想과 朝鮮의 儒者. 서울: 혜안, 2003.
- 千惠鳳. 日本 蓬左文庫 韓國典籍. 서울: 지식산업사, 2003.
- _____. 「韓國 書誌學」. 서울: 민음사, 1999.

2. 論文

- 강순애. “初鑄甲寅字本 「近思錄」과 관련 板本 研究.” 「書誌學研究 제24집 (2002), 161-189.
- 金學主. “朝鮮刊 「楚辭集註 簡說」.” 「東亞文化 제27집(1998), 3-10.
- 金恒洙. “16세기 士林의 性理學理解-書籍의 刊行·편찬을 中心으로.”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81.

- _____. “16세기 士林의 禮意識과 禮書編纂.” 同大論叢 제22집(1992), 623-642.
- _____. “朝鮮前期 性理書 解釋의 推移.” 同大論叢 제25집(1995), 217-234.
- 金益洙. “韓國의 朱子學 受容과 그 展開에 關한 論究-主로 麗末鮮初를 中心으로.” 『건국대 論文集 제13권(1981), 149-170.
- 盧仁淑. “文公家禮 研究-著作의 眞僞와 版本에 關하여.” 儒學思想研究 제1집(1986), 175-192.
- 도현철. “高麗後期 朱子學 收容과 朱子書 普及.” 東方學志 제77-79집(1993), 189-221.
- 박병수. “周易參同契 의 성립과 그 성격.” 정신개벽논집 제15집(1996), 175-210.
- 宋熹準. “近思錄 의 도입과 이해.” 啓明大 韓國學論叢 제22집(1995), 131-145.
- 申美子. “朱子感興詩 研究(1).” 『中國語文學論集 제11집(1999), 221-244.
- 辛承云. “朱子の 名臣言行錄 편찬과 그 資料.” 季刊書誌學報 제22집(1998), 45-75.
- 吾妻重二 著, 李承妍 譯. “家禮 의 刊刻과 版本- 性理大全 까지.” 東洋禮學 제4집(2000), 43-84.
- 禹貞任. “朝鮮初期 書籍輸入·刊行과 그 性格-性理學書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1994.
- 李廷燮. “鶴峰 金誠一宗孫家所藏典籍-指定文化財 中心으로.” 季刊書誌學報 제2집(1990), 75-123.
- 장동익. “1575년(宣祖 8) 日本 使臣團에 關連된 古文書資料 檢討.” 역사교육논집 제35집(2005), 267-285.
- 정호훈. “朱子 『孝經刊誤』와 그 성격.” 『東方學志』 제116집(2002), 71-106.

